

중국 농촌의 경제개혁과 인구문제 -계획생육의 경제사회학-

장 경 섭

개혁기 중국 정부가 농촌에서 가족의존적 생산·복지정책을 추구하고, 동시에 농촌가족의 산아제한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정책목표의 모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민가족이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 소비, 부양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 농가의 적정 조직규모는 개혁정책의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커야하는 반면, 실질적 가족규모는 그 동안의 집중적인 산아제한의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작은 딜레마가 있다. 즉, 개혁정권의 경제정책은 농민들에게 뜻밖의 경제적 호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강압적 가족계획으로 인해 가족규모가 줄어들고 가족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갈수록 많은 농민들이 그 경제적 기회를 살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중국 정부는 가족계획에 따르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상적 가족수에 대한 관념을 인위적으로라도 바꿔 보려고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소가족들의 '경제적 불리'를 국가 인구정책 추종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상쇄시킴으로써 농민 출산의 비용·혜택 구조를 가족계획에 용이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한편, 농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개혁정권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모순에 대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해 왔다. 즉, '불법적' 출산행위를 은폐하거나 영아살해를 범하고, 이웃과 친족 사이의 도구적 유대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가족 일손을 늘리기 위해 취학 아동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농촌을 떠나 개인 노동자로 변신하는 등 다양한 적응노력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I. 서 론

共產革命 이후 中國 농촌의 경제발전사는 농업에 있어서 집단생산 양식과 가족생산 양식이 부단히 교체되어 온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농민가족들은 정치적 안전과 물질적 생존을 위해 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빈번한 국가정책 변화에 월새없이 적응시켜 나가야 했다. 1950년대에는 土地改革에 이어 점진적이고 꾸준한 농업 集團化 작업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며 꾸준히 추진되는 듯 했다 (Chao, 1970). 그러나 1950년대 말 大躍進운동기에 당시 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격한 대규모 人民公社化 작업이 추진된 결과, 많게는 2-3천만 명의 餓死者를 내는 등 엄청난 재앙이 초래됐다 (Peng, 1987). 따라서 1960년대 초에는 집단농업체제의 전면적 재조정이 실시되

*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한국사회학회 1993년도 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과 제안의 말씀을 준 Alice Goldstein, 南忠吉, 顧寶昌, 馬戎先生께 감사드린다.

어, 개별 농가의 경제적 기능이 상당히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곧 이어 1960년대 후반에는 文化革命의 와중에서 집단생산의 원리가 다시 강조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鄧小平 정권하에 실시된 농촌의 脱集團化로 인해 농민가족들이 자체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 뿐 아니라 다양한 비농업 부문의 생산까지 떠맡게 되었다 (Chang, 1993a, 1993b).

그런데 비슷한 양상의 국가-농민가족 관계가 인구문제를 둘러싸고도 전개되었다. 즉 中國 정부의 인구정책은 정치이념과 인구압력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해 번번히, 과격하게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가족들은 국가의 정치적 압력도 소화시키고 가족유지의 인구적 요건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적응 노력을 펴야 했다. 毛澤東(Mao, 1965:453-54)은 한때 中國의 거대한 인구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적 자산이라고까지 강조했다.

中國이 거대한 인구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설사 中國 인구가 몇배로 불어난다 해도 中國은 대처할 능력이 충분하다. 맬서스와 같은 서구의 부르조와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식량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오래전에 맑시스트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크게 논파되었을 뿐 아니라 혁명 이후 蘇聯과 中國 해방구들의 현실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났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인민이 가장 고귀하다. 인민이 있는 한 共產黨의 지도하에 모든 종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성공적인 공산혁명의 지도자 毛澤東은 고전적 맑시즘의 反맬서스론을 야심적인 親인구(pro-population)적 공산주의 발전전략으로 승화시키려 했다.¹ 그러나 다른 많은 정책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인구문제도 共產黨 내부의 實用主義者들과 革新主義者들 사이의 열띤 논쟁 및 권력투쟁 거리가 되었다.

농촌 및 도시의 사회주의 이행 작업이 한창이던 1954년에 이미 劉少奇는 산아제한에 관한 회의를 열어 中國共產黨이 산아제한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Hou, 1981). 1956년 周恩來는 한 공식석상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의 건전성과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어린 세대를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한 산아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62년부터는 大躍進운동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調整期가 시작되고 中國 정부는 다시 한번 산아제한 지시를 지방으로 하달했다. 이 시기에는 家族計劃, 즉 中國 용어로는 計劃生育이 共產黨 및 국가의 공식 정책용어로서 도입되었다 (CFEPPH, 1988).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이나 1960년대 초반 모두 인구(억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¹ 毛澤東의 反맬서스적 입장이 언제나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다. 1957년 中國共產黨 8期 中央委員會 3次 全體會議에서 그는 인구조밀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이때, 毛澤東(1965:488)은 “출산에 관한 한 인류는 완전한 혼돈 상태에 있어서 조절을 하는데 실패했다… 산아제한을 위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가변적 태도는 1970년대에 들어 毛가 가족계획의 실시를 용인하게 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고해주고 있다.

입장이 전체 발전전략의 급진화와 더불어 毛澤東적 입장으로 수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산아제한이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毛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자 실용주의자들은 곧바로 본격적인 가족계획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대로 인류역사상 가장 극적인 ‘유도된 출산율 전환(induced fertility transition)’ 이었다 (CFEPPH, 1988; Tien and Lee, 1988).²

그런데 산아제한이 共產黨 내의 실용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농민가족들에게 매우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즉 실용주의자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는 산아제한만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農家經濟의 자율성이 대폭 촉진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실용주의자들은 中國의 비교적 낮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는 농민 가족들의 경제적 개인주의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사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大躍進운동 후의 調整期와 최근의 改革期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두 시기에 共產黨 내 실용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하거나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농민가족들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집단생산 체제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가족중심적 사회·경제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맞았고 따라서 자녀(출산)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 즉 中國에서 산아제한은 공교롭게도 실용주의 경제정책 아래 농민 가족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출산욕구가 증대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촌 경제발전과 산아제한에 관련된 두가지 정책 사이클이 농민인구에 대해 미친 영향은 서로 독립적으로 혹은 분리되어 나타날 수가 없었다. 농민가족이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가구)의 규모, 내부구조, 의사소통, 자원유통 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조직적 자율성(organizational autonomy)을 확보해야 한다.³ 그런데 최근 改革期에는 농민들이 가족규모(가족노동력)에 있어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초부터 강력하게 실시되어 온 산아제한에 의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가족규모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개혁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뜻밖의 경제적 호기를 맞게 했지만, 헌법적으로 규정되기까지 한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 아래 농촌의 평균 가족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각 가구별로 심한 가족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농촌사회 전체로는 토지에 대한 인구과잉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인 中國에서 각 생산단위(농가)별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中國의 농촌개혁 경험을 좀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 농민가족

2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8년에 7.025에서 1978년에 2.968로 급감했다 (CFEPPH, 1988:26).

3 中國에서는 家族 대신 家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家族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때 家族은 같은 물리적 공간, 즉 거주지를 함께하거나 최소한 찾은 사회·경제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공동생활의 지속성을 띠는 친척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家族은 (혈연)家口를 포함하는 것인데, 사실상 두 단위는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분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가족규모, 가구규모, 가족수, 식구수 등의 용어가 염밀한 형식적 정의 보다는 뉘앙스를 좇아 다소 혼용되고 있음을 유의바란다.

의 생산 및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얹히는 인구변동과 경제발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경험적으로 검토되는 명제는 農家의 존적인 經濟改革 전략이 산아제한 등 인구조절 정책의 사회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합의는, 개혁지도자들과 농민 모두에게 극히 부담스러운 인구와 경제 사이의 상호모순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흡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착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학에서 인구정책 문제를 다룰 때, '人口過剩'이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적 문제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각종 인구조절책들의 정책적 효율성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中國 정부의 '計劃生育' 정책 자체를 하나의 사회학적 분석 대상의 변수로 놓고 이 변수가 共產黨이 주도하는 국가와 개별 농가 단위로 재조직화된 농민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대상시기는 주로 1980년대로 한정하기로 한다. 인구 억제 문제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1990년대 초반에 벌어지고 있으나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가 정리되는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New York Times*, April 25, 1993 참조).

II. 家族勞動力과 農民經濟

1. 이론과 경험

中國의 개혁주도자들은 가족규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다 (Su, ed., 1982:66).

가족들은 좀더 작고, 독립적인 단위로 생활할 때 더욱 부지런해진다. (한 生產大隊의 간부는) 농민 완ショ우첸의 예를 드는데, 그의 가족의 소득은 그가 비록 결혼한 두 아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지 않았다. 문제는 두 며느리가 자신들 둘의 농사일을 일부러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족이 세 혼가족가구로 나뉘고 난 이후에는 개개인이 각각 많은 수입을 올려야 했는데, 이것이 두 여자한테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작은 가족단위에서 훨씬 쉽다고 생산대대 간부는 말했다… 큰 가족들에서는 세대간의 갈등, 특히 경제적 문제들과 집안일에 대한 다툼이 흔해진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점은, 작업노력을 감시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등의 문제는 바로 서구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中國 집단농업의 필연적 실패 요인으로서 제시하는 것들이다 (張慶燮, 1992). 즉 中國 지식인들이 대가족의 경제적 문제

점을 부각시키는데 서구의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형’과 유사한 성격의 인민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⁴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입장은 毛澤東이 강조했던 자율적이고 집단지향적인 공산주의 인간형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전통시대와 改革期를 포함해 中國 농민이 갖고 있는 대 가족의 사회·경제적 이점에 대한 관념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Croll(1988:82)의 관찰에 의하면,

가족의 크기와 수입·복지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농민가족들의 전통적 믿음은 많은 자녀수를 많은 富와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수많은 속담들에 반영되어 있다. 이 연관성은 ‘千元 및 萬近’호들이 이웃들보다 뚜렷하게 큰 (오늘날) 中國 농촌의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타당시되고 있다.

Chayanov(1968:67)에 따르면, “성장이라는 인구과정과 규모에 의한 가족 분포는…상당한 정도로” 농업과 부업활동의 운영규모를 좌우한다. 이는 가족노동력의 크기가 농가들의 전반적 생산능력을 결정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핵심적 생산목적은 가족성원들의 생계만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대가족들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작용하면 농민들의 가족규모와 (가족 전체 및 가족성원당) 경제력 사이에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민 경제여건을 결정하는 다른 생산요소들 가운데는 농가별로 다양한 농지규모를 들 수 있는데, 농지규모 자체가 대체로 가족노동력의 크기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Buck, 1930; Chayanov, 1986). 20세기 초반 러시아처럼 농지공급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작확대나 토지개간은 각 가족별 노동력 규모와 생계충족 욕구에 의해 결정되었다 (Chayanov, 1986). 혁명전 中國에서처럼 만성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희소한 토지에 대한 경쟁 및 배분 기준으로서 가족노동력은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Buck, 1930; Fei, 1939). 특히 지주들은 자체 노동력이 풍부한 가족들과 소작계약을 맺고 싶어 했다. 따라서 농지규모는 대가족의 경제적 이점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매개변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Buck(1930:34)가 1921년에서 1925년 사이에 2,866호의 中國 농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규모와 농지규모는 0.54라는 통계적 유의성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Buck(1930:448)의 조사는 가족규모에 따라 농가 자본규모, 곡물 산출량, 총소득, 노동이윤 등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⁵ 특히, 농지규모(인구규모)가 큰 농가는 그렇지 못한 농가에 비해 이러한 경영지표에 있어 가구별 실적 뿐 아니라 성원(남자성인)별 실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예외는 비농업 소득에 관한 것이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중규모 농가들보다 높은 1인당 비농업 소득을 올렸다. 이는 소규

⁴ 여기에서 대가족은 흔히 상정되는 ‘전통적 확대친족’ 가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규모 가족, 즉 식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족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소가족은 식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을 가리킨다.

⁵ Chang (1991:55), Table 2 참조.

모 가족들이 가족농업에 부적한 노동력 구조 때문에 비농업 부문으로 전향하는 테서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이다.⁶ Buck의 조사는 가족규모와 경제형편에 관한 中國 농민들의 전통적 이해가 결코 과학성을 결여한 비합리적 관념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최근 改革期의 농민 사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잘 암시해 주고 있다.

2. 가족 구조 및 규모의 역사적 추세

최근의 역사인구학적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대 가족제도의 변화는 결코 소규모 핵가족들이 대규모 확대가족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Peter Laslett 등이 산업혁명 이전의 서유럽을 연구함으로써 드러났는데 中國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中國의 평균 가족(가구) 규모는 漢代에서 초기 國民黨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5.0인 내외의 수준을 유지했으며, 같은 기간에 핵가족가구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었다 (Liu et al., eds., 1981). 20세기 중반이 가까워 올수록 지방별 가령주구, 식민수탈, 내전의 고통 등이 가중되어 출산율 및 평균 가족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으나, 이 감소세는 공산혁명의 완수와 함께 일시적으로 원화되었다. 공산혁명 이후에는 1950년대에 농업집단화의 실시로 농민인구의 출산율이 둔화되고 평균 가족규모도 감소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는 中國版 ‘베이비 봄’이 전개되고 평균 가족규모도 1960년대 말부터는 1950년대의 최고 수준인 4.6인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농촌개혁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은, 1970년대 초부터 실시된 강력한 산아제한의 가족구조에 대한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은 농민가족들의 개혁 경험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었다. 첫째, 적어도 개혁 초기에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가족노동력을 가진 상태에 있었다. 사실, 中國의 베이비 봄 세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성인 노동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脱집단화된 농촌의 가족노동력 원천이 되어가는 것이다. 개혁의 시발점에서 농민들의 가족구조는 전통시대 때부터 혁명 직전까지 관찰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다. 역으로 말하면, 가족농업을 부활시키는 개혁정책이 몇 년만 늦어졌어도 그 성공도가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다.

이 추론은 두번째 측면을 검토해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즉, 가족계획에 의한 가족구조 변화의 효과는 농촌개혁이 진전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中國의 평균 가족규모는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CFEPH, 1988). 그런데 이처럼 가족계획에 의한 가족규모 축소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中國 정부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산아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민들은 개혁 초기에

6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현상은 ‘한 자녀 갖기’ 정책으로 가족노동력의 부족이 초래된 改革期에도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경제생활의 향상을 경험했으나 곧 이어 가족노동력이라는 경제조직의 기초를 유지하는데 있어 인구구조 및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난관에 봉착해야 했다.

이러한 난관이 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초기 개혁의 효과가 소규모 가족들보다는 대규모 가족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대규모 가족들의 경제적 이점이 여러가지 개혁 정책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결과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족규모가 줄어 든다는 사실은 갈수록 많은 농가들이 자율적인 가족생산 활동을 통해 개혁의 혜택을 누리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을 뜻한다.

III. 修正社會主義의 딜лем마 – 두가지 實用路線의 상충

1970년대 초부터의 中國 출산율의 빠른 감소세는 잘 입안되고 엄격히 수행된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결정적으로 기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이 간과되서는 안된다. 1970년대에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도 출산율은 경제적 사정의 꾸준한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 활동의 집단화에 따른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의 변화를 반영해 상당한 浮沈勢를 보여 왔다.⁷ 中國의 출산율 변화에 관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출산행위에 관한 ‘國家干渉(state intervention)’ 이외에 다양한 사회학적 변수들도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는데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Greenhalgh, 1988; Chang, 1990).

1970년대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의 빠른 경제성장을 멈추고 경제 침체기에 들어선 기간이다. 특히 中國 농촌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토지부족(인구과잉) 문제, 離農 육구의 정치적 억압, 집단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의 不在, 국가 농산물 수매가의 정체 등의 요인이 겹쳐 많은 농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답보 혹은 악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농촌의 집단생산 체제가 적어도 조직적 차원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로 인해 경쟁적 사회·경제 제도로서 농민가족의 기능은 갈수록 퇴화하게 되었다. 엄청난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 지원을 수반한 中國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이 실행된 것은 바로 이같은 사회·경제적 시점에서였다. (가족중심적) 농민생활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多產 규범은 이미 약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산아제한 지시는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Chang, 1990). 어떤 의미에서 1970년대는 국가의 인구정책과 농촌개발전략이 (의도하지 않은) 상호 조화를 이룬 시기였다.

⁷ 경제사정 변화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은 특히 大躍進期에 심각했는데, 이때 식량생산의 급감으로 전국적인 飢餓와 출산율 격감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Peng, 1987). 생산조직 집단화의 영향은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집단조직체에서 농민생활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자녀수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Chang, 1990).

1970년대와는 대조적인 상황이 1980년대의 改革期에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人民公社 중심의 집단생산 체제가 해체되고 가족중심적인 농민경제가 부활되었는데 바로 이같은 변화가 산아제한 정책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中國 정부는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매우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산아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이를바 ‘한 자녀 갖기(只生育一個孩子)’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國家計劃生育委員會, 1986:922-25). 1970년대 말에 共產黨 내의 실용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979년은 농민가족을 농촌의 핵심적 생산조직체로서 부활시키려는 일련의 개혁정책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농민가족들, 특히 성인 식구수가 많은 농민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이 뜻밖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농민가족들은 1970년대의 강력한 가족계획 시책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를 겪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농업생산을 강화하고, 소득원을 다원화시키고, 전통적 문화행위를 부활하고,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자녀수를 늘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Croll, 1988; Saith, 1984). 동시에 中國 정부의 산아제한에 대한 결의도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권력을 잡은 실용주의자들은 엄격한 산아제한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⁸ 가족계획 담당 기구들은 이미 10여년의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 관료적 힘과 경험을 축적했다. 1978년의 새 헌법이 가족계획을 국가의 공식 과업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 자녀 갖기’ 정책은 中國 인민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지속적 인구조절에 대한 中國 정부의 결연한 의지에 의해 곧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듯 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농민들의 출산욕구가 증대되고 법적 결혼연령을 낮춘 새로운 혼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출산율이 잠시 높아졌으나 1984년 들어 아주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다. 첫째, 가족계획의 강제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비자발적 산아제한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이 눈에 띠게 증가했다. 물론 수년간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해 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산아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지만, 농민들의 가족중심적 경제활동이 빠르게 부활되고 있는 와중에서 한 자녀의 출산만 허용한다는 것은 농민들 뿐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방 간부들 조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시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저항과 지방간부들의 망설임이 심해지자, 1983년 中國 정부는 한 자녀를 둔 모든 可姪 연령의 기혼여성들은 IUD를 착용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들은 불임시술을 받고, 허용되지 않은 임신을 한 부인들은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Hardee-Cleaveland and Banister, 1988).⁹ 이같은 엄청난 조치들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들은 ‘한 자녀 갖기’를 따라야 했지만, 가족의 출산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따른 불만이 전 사회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8 1982년에 모두 1,242만건의 낙태가, 1983년에 모두 1,437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기록을 세웠다 (Hardee-Cleaveland and Banister, 1988:276).

농민들은 국가의 강요된 인구억제 정책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거나 여러가지 눈가림식 대응을 하는 외에 국가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전국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⁹ 당 및 국가의 실용주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개혁정책이 정치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농민인구의 지지가 결정적 요건임을 알기 때문에 이같은 농민 불만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자 지방 간부들에게 지시되는 인구정책 지침은 점차 온건성과 모호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농민인구에 대해서는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여 그 결과 1986년 아래 출산율이 다시 눈에 띠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상황이 되자, 서기 2000년까지 인구규모를 12억에 묶어 두겠다는 아심찬 계획은 곧 실현 불가능함이 드러났는데, 특히 1990년 7월 1일 실시된 4차 인구 센서스에서 中國의 인구는 1982년 3 차 인구 센서스 때 보다 무려 12.45%가 늘어난 1,133,682,501명으로 집계되었다(『人民日報』, 1990.11.7).

비록 전격적인 각종 정책변화와 급격한 출산율 증감이 共產中國의 역사에서 새삼스러운 일들이 못되지만,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개혁 정권이 농가에 의존한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을 망치지 않기 위해 야심적인 인구억제 목표까지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다양한 농촌 경제개혁 정책들은 대체로 가족규모가 큰 농가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실용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가족계획을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이다. 인구억제에 관련된 이같은 정치적 변화들은 가족규모에 결부된 농민들의 경제적 생활여건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V. 社會主義와 농민 가족규모의 의미

1. 人民公社 시대의 경험

가족규모와 경제형편의 비례관계에 대한 中國 농민의 전통적 이해가 오랜 경험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과학성을 지니고 있음을 위에서 지적했다. 혁명전 中國에서 인구(노동력)규모가 큰 농가는 그렇지 못한 농가에 비해 곡물 산출량, 총소득, 노동이윤 등의 경영지표에 있어 가구별 및 성원별 실적이 높았었다. 이같은 가족규모의 경제적 합의는 혁명후 가족생산이 중단되고 집단농업 체제가 들어섬으로써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Chang, 1990). 집단농장에서 농민들은 가족성원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 자격으로 생산에 참여했으며, 따라서 특정 가족의 규모는 생산조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⁹ Ⅶ장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농민들은 국가의 감시를 불법적으로 피해서라도 충분한 가족노동력을 얻고 대를 잇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밀리에 불입시술을 복원시킨다는지, 허용범위를 넘어선 임신을 한 부인들이 숨어 지낸다든지, 태어난 여아를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심지어 영아살해하는 등 갖가지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집단농업 시대에 가족규모의 경제적 합의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人民公社 체제가 안착된 1960년대 이후에는 하부 단위인 生產隊별로 농업생산을 한 후 연말에 집단소득(식량)의 60-70% 정도를 가족수(家庭人口)에 의해 분배하고 나머지를 가구별 연간 노동점수(功分)에 의해 분배했다. 또한 개별 가족생산을 하는 소규모 텃밭(自留地)도 가족수에 의해 할당되었다. 이러한 방침들은 생계소비가 가족별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가족수는 총족되어야 할 생계량의 지표였기 때문에 취해졌던 것이다. 가족 수에 의해 나눠진 배급식량 및 개별 텃밭은 말할 것도 없고, 功分에 의해 배분된 식량도 功分 자체가 대체로 가족수(좀더 엄밀히는 성인노동자수)에 비례했기 때문에 가족 규모의 경제적 합의는 집단경제 시대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Hsiung & Puttermann (1989)은 집단농업하에서 가족수와 가구소득 사이에 뚜렷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2. 改革정책의 영향

1980년대의 개혁정책으로 수십년간 힘들여 실험했던 사회주의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가족농업이 복구되었을 때 가족규모의 경제적 합의는 생산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집단농지의 개별 농가에 대한 할당은 주로 가족성원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더러는 가족노동자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다 (張慶燮, 1992). 본격적 脱집단화의 1단계인 報產到戶 기간(1980-82)에는 개별 할당 농지로서 가족성원수에 의한 것(人口分地)과 가족노동자수에 의한 것(勞動分地)의 두 가지가 있었다. 脱집단화의 완료단계인 報幹到戶 기간(1983년 이후)에는 농지가 개별 농가의 생계수요를 감안한 것(口糧地)과 국가와 개별 농민사이의 생산계약에 의한 것(承包地)으로 나뉘었다. 口糧地는 모든 농가들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식구수에 의거한 배분이 실시되었다. 承包地는 국가와 개별 농민들 사이에 맺어진 식량수매 목표와 집단기여금에 관한 계약에 의거해 농지를 할당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제도였지만, 이 역시 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할당이 일반적이었다.

〈표 1〉을 보면, 일례로 河北省 大河人民公社(현재 大河鄉)에서 報幹到戶 기간에 개별 농가에 대한 농지배분이 거의 가족수에 비례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난다.¹⁰ (가족노동자수

¹⁰ 大河는 河北省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省都인 石家莊으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大河에서는 1979-80년과 1986년에 각각 Steven Butler와 Louis Puttermann에 의한 농촌 발전에 관한 사회조사가 이루어졌다 (Puttermann, 1989 참조). 이 두 조사에 의해 生產隊, 家口, 個人 수준에서 자세한 사회·경제적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改革을 전후해 농촌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당초, 大河는 Steven Butler의 요청에 의해 이 지역의 일반적인 주곡 농업지로서 조사되었는데, 改革이 전개됨에 따라 인근 石家莊의 영향으로 도시 경제권에 점차 편입되어 가고 있다.

〈표 1〉 1985년 大河鄉의 報幹到戶 실태

(단위 : 歐)

가구 전체	가구 전체				가족원별 혹은 가족노동자별			
	全農土	自留地	口糧地	承包地	全農土	自留地	口糧地	承包地
가족원수 (사례)								
1 (10)	1.168	.063	.260	.845	1.168	.063	.260	.845
2 (8)	3.176	.189	.562	2.424	1.588	.095	.281	1.212
3 (36)	4.110	.239	.845	3.026	1.370	.080	.282	1.009
4 (74)	5.423	.299	1.089	4.036	1.356	.075	.272	1.009
5 (54)	6.401	.406	1.283	4.711	1.280	.081	.257	.942
6 (36)	6.920	.474	1.684	4.762	1.153	.079	.281	.794
7 (10)	8.543	.552	2.475	5.516	1.220	.079	.354	.788
8-13 (18)	8.761	.634	2.142	5.985	.927	.065	.216	.646
가족노동자수 (사례)								
0,1 (19)	2.745	.217	.464	2.064	2.897	.229	.490	2.178
2 (122)	5.358	.303	1.091	3.964	2.679	.151	.546	1.982
3 (46)	6.606	.463	1.691	4.452	2.202	.154	.564	1.484
4 (27)	6.962	.414	1.081	5.466	1.740	.104	.270	1.366
5 (15)	8.282	.480	1.660	6.142	1.656	.096	.332	1.228
6-9 (12)	8.191	.647	3.004	8.225	1.276	.100	.465	.711

자료: Chang (1991:56), Table 3에서 재인용. 원래 Hebei Province, Dahe Commune/Township: Data Sets and Codebook (Puterman)에서 계산.

가 대체로 가족수에 비례하므로 가족노동력에 비례한 배분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약간 타당성이 덜한 관찰이 될 것이다.) 이 현상은 배분된 농지가 口糧地나 承包地나에 상관없이 나타난 것이다. 사실, 1980년대 중반에 수행된 전국적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中國 전역에서 일반적이었음이 나타난다 (Watson, 1987). 〈표 1〉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노동력(가족노동자수)과 가족원 1인당 承包地 면적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承包地가 (그동안 국가의 산아제한 시책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충분한 성인노동자를 갖지 못한 농민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인 보상기제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요약하면, 농지 부족으로 농지에 대한 지나친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는 가족규모는 효율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평한(이념적으로 바람직한) 농지배분 기준이 된다. 이는 가족수가 한편으로는 충족시켜야 할 생계요구량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는 경작 의지 및 능력에 대한 가장 적확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규모와 가족노동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족원 중 노인과 아동 등 피부양집단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가족규모와 가족노동력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날 수가 있고 나아가 식구수만 많고 가난한 가족들이 오히려 혼할 수 있다. 이같은 가능성은 中國 농촌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즉 농민가족

들은 현재와 미래의 낙관적인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꺼이 ‘허가되지 않은 출산’을 하고 있으며, 文化革命期 이후의 ‘보건혁명’ 덕분에 갈수록 많은 노인들이 장수하고 있어, 각 가족내에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아동, 노인 등 피부양인구의 비율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를 포함한) 가족수에 의한 농지 배분은 노동력이 없는 아동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정도 덜어주는 작용을 했다. 더우기 中國 농촌의 아동들은 심지어 취학연령이 되기 전에 가사 보조에 동원되는 등 비교적 일찍 ‘노동자화’된다. 즉 改革期 농지배분 정책의 결과, 신생아가 있는 농민가족들은 장차 새로운 가족노동력 보급의 효과를 누리기 전에 높은 부양비(dependency ratio) 때문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신생아 앞으로 할당된 농지를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

〈표 2〉 1985년 大河鄉 농가들의 가족노동자수와 소득구조

(단위:元)

	가족노동자수 (사례)					
	0,1 (19)	2 (122)	3 (46)	4 (27)	5 (15)	6-9 (12)
<가구순소득>						
전체純소득	1,679	2,872	4,155	4,665	5,744	6,064
自營소득	1,076	1,961	2,481	3,357	4,280	3,606
雇用소득	603	897	1,647	1,311	1,465	2,457
集體기업	139	276	445	450	417	375
新經濟聯合	200	128	178	178	178	400
鄉鎮기업	264	494	1,024	683	870	1,682
일인당 純소득	894	729	823	782	905	682
일인당 自營소득	554	494	499	549	672	400
일인당 雇用소득	340	231	320	234	234	282
<自營총소득>						
총소득	1,522	3,310	3,844	4,952	6,113	5,397
곡물소득	801	1,593	2,151	2,186	2,432	2,557
주곡소득	600	1,087	1,447	1,634	1,982	1,848
현금작물소득	203	496	703	555	610	708
부업소득	193	526	843	1,125	821	1,166
2,3차업소득	519	1,157	849	1,640	2,857	1,757
일인당 총자영소득	779	835	774	808	936	605
일인당 곡물소득	360	403	437	359	375	287
일인당 부업소득	69	130	291	185	126	143
일인당 2,3차업소득	346	293	160	264	435	187

자료: Chang (1991:59), Table 4에서 재인용. 원래 Hebei Province, Dahe Commune/Township: Data Sets

and Codebook (Puterman, 1989)에서 계산.

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가중시킨다는 않으며, 따라서 직계가족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¹¹

대규모 농민가족들의 이점은 대규모 농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표-2>와 <표-3>에 보여지듯이, 노동자수가 많은 가족들은 농업 및 비농업 생산 실적이 우수했고 나아가 경제활동의 다변화도 용이했다. <표 2>는 1980년대의 大河鄉에서 가족원과 노동자가 많은 농민가족들이 갖는 경제적 이점들이 Buck이 관찰한 혁명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족노동자수는 가족원별 순소득과는 체계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지만 농가전체 순소득과는 뚜렷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족노동자수는 가족원별 및 농가전체 자영순소득과 비례관계에 있다. 만약 소가족들에게 承包地가 유리하게 배분된 사실(<표 1>)과 사회복지기관이나 학숙소 등 특수 대가구들의 사정을 마저 감안하면, <표 2>로부터 가족노동력과 (가족원별 및 가족별) 자영소득 사이에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¹²

그런데 대규모 가족들은 외부 고용소득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성인)가족노동자가 특히 귀할 때 외부 고용소득의 규모나 비중이 커졌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는 가족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족 중심의 자영업보다는 개별적 외부 고용기회를 찾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자영소득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가족노동자수가 3-4명으로 비교적 풍부한 경우는 (농업 관련) 부업활동이 활발했고, 가족노동

<표 3> 1985년 大河鄉 농가들의 가족노동자수와 노동력 배치

	평균 가족노동자수 (사례)					
	0,1 (19)	2 (122)	3 (46)	4 (27)	5 (15)	6-9 (12)
農業노동자	.53	1.00	1.33	1.67	2.00	2.75
副業, 企業노동자	.58	1.06	1.69	2.15	2.60	4.08
副業노동자	.26	.60	.58	.89	.93	1.50
企業노동자	.32	.46	1.11	1.26	1.67	2.58
家事노동자	.32	.15	.36	.37	.60	.42

註: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노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문의 노동자수의 합이 반드시 전체 가족노동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Chang (1991:60), Table 5에서 출임. 원래 ebei Province, Dahe Commune/Township: Data Sets and Codebook (Puterman, 1989)에서 계산.

11 식구수 중심의 토지배분이 갖는 직계가족 유지 효과는 농촌 노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Chang, 1993b). 그러나 신생아 부양 부담의 경감 효과는 인구억제책에 매우 역기능적인 것이다.

12 이러한 대가족의 경제적 이점은 大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中國 농촌 전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1981년에 396호의 농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가족보다는 대가족이 일인당 100 元 이상의 소득을 올릴 확률이 높았다 (Croll, 1988:92-93).

자수가 극히 적거나 많은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 활동이 활발했다.

〈표 3〉을 보면, 大河에서 가족노동자수가 농가 경제활동의 다변화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력 배치에 있어서, 가족노동자수가 많으면 농업, (농업 관련) 부업, 기업활동에 투입된 인력도 많았지만 가사노동 인력은 반드시 많지 않았다. 이를 바꿔 말하면, 가정살림은 가족규모나 가족노동자수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가사 노동력을 기본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가족들은 소규모 가족들에 비해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가사노동 절약에 대한 대가족들의 이점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와 비율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3. 가족규모와 社會保障

대가족의 이점은 농업 및 비농업 부문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中國의 특수한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농민 복지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中國 정부는 암묵적인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촌 복지를 농민가족의 자체 사회보장 기능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펴 왔다 (Chang, 1993b). 人民公社 시대에는 각급 집단조직체들이 식량, 의복, 의료, 교육, 주택 등 이를바 ‘다섯가지 보장(五保)’ 체제를 통해 미약하지만 나름대로의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인민공사 체제가 해체되면서 농민 복지의 대부분을 농민가족이나 국가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야기됐다. 이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미 재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中國 정부로서는 농민가족의 전통적인 자체 사회보장 기능을 재강화시키려는 방임적 (무)복지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처럼 개별 농민가족의 자체 부양기능이 농민 복지를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가족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곧 복지상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단적 사회보장 기제의 붕괴로 인한 고통은 이미 생산활동에서 不利를 겪고 있는 작은 가족들에게 특히 심각한 것이다. 여기에 대가족 혹은 대규모 친족집단이 비상시 상호구제를 위해 물자를 합할 때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와 재정적 신축성을 고려하면 소가족들의 상대적 곤궁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같은 가족규모에 관련된 경제적 문제들에 덧붙여, 中國 사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한 자녀 갖기’ 운동 등 제반 산아제한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 中國 농촌의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노후 생활보장과 대잇기를 위해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湖北省 농민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가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자의 51%가 ‘노후 부양을 맡을 아들이 필요해서’, 25%가 ‘조상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Davin, 1985). 또 다른 농촌 사회조사에서, 겨우 응답자의 2.2%가 그들의 유일한 자녀가 딸이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Croll, 1988). 오늘날도 中國의 부모들은 결혼한 딸보다는 결혼한 아들과 더욱 강한 사회·경제적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集團시대나 改革시대나 모두 父

系·夫居制 친족관계의 전통이 명맥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¹³ 그리고 다양한 경제개혁 정책과 인구억제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으로서 이같은 남자 중심의 친족질서가 더욱 강화되는 면도 있다 (Wolf, 1985). 사회·경제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던 여러가지 차별 대우가 만족할만큼 개선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딸들은 능력있는 남성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노부모 부양은 차치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 자체를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 (Honig and Hershatter, 1988).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가 아들 몇 명을 갖느냐는 협의가 될 수 있지만, 부모를 모시고 家系를 유지할 아들 하나는 최소한 갖고 싶은 욕구는 절대적인 것이다” (Davin, 1985:41).

V. 國家의 出產收益性 조정 역할

改革期 농민생활에 대한 가족규모(가족노동력)의 중요성을 농민들 자신 뿐 아니라 中國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中國에서는 오래전에 익숙해진 현상이지만, 정치적 압력과 도덕적 설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이 “지나친 속도와 규모의 인구 성장이 교육, 고용, 개발자금 축적, 인민 생활수준 향상을 어렵게 할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족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유도 하려고 시도해 왔다 (Liu, 1981:21). 이러한 노력은 농민가족들이 그들의 출산행위가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체증과 자원 소진이라는 심각한 부정적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촌 경제발전을 위해 농민들의 가족중심주의가 정책적으로 촉진되고 共產黨의 이념적 지도력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 자녀 갖기’ 규범을 정착시키는데 있어 ‘대중적 자발성(mass voluntarism)’을 기대기는 어려운 일이다.(Tien, 1983:33). 따라서 초기에 있었던 교육 및 대중적 계몽 노력 대신에 곧 可姪인구의 철저한 감시, 강제적인 낙태와 불임시술 등 강압적 규제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무리한 규제조치들에 대해 농민들도 강력한 대응과 회피 노력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규제조치들 자체가 약화 또는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70년대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은 출산에 대한 비용-혜택 균형점(cost-benefit balance)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질적 보상과 규제를 효과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즉, ‘한 자녀 갖기’ 규범의 준수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물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박탈함으로써, 中國 정부는 정치적으로라도 농민들의 가족계획이 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빈곤과 노후 불안 등의 문제들을 과거의 五保(wubao)체제와 같은 일반 사회보장체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한에서는

¹³ 어떤 의미에서는 人民共和國의 성립 후 여러가지 법령과 정책이 父系·夫居制를 전제로 하거나 오히려 공식화시키는 작용도 하였다.

‘한 자녀 갖기’에 따른 농민들의 不利를 개선된 공공복지로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아제한이 물질적 혜택과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연결될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 때문인지, ‘한 자녀 영예 증서’가 각종 국가적 특혜에 대한 일종의 보증서로서 배포되기 시작했다.¹⁴

이러한 명시적으로 제도화된 특혜와 규제 외에, 한 자녀를 둔 가족들은 일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 및 이권의 배분에 있어 암묵적이나마 우선적 대우를 받게 되었다. 河南省의 한 의류상인의 예가 시사적이다.

나의 아내와 나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한 자녀만 갖기로 결심한 몇사람들 가운데 끼인다. 당시에 우리는 밀을 재배하고 빛자루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다… 약 6년전 마을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한 자녀 가족들이 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질을 주었다. 그것이 정책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편지를 써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면허와 5천원의 은행 융자를 얻었다… 은행 융자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村, 鄉, 縣 당국으로부터 공식 허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얻는데 별 힘이 들지 않았다 (Beijing Review, 1990.7.23-29:36).

마치 毛澤東 시대에 좋은 계급성분이 각종 지원 할당과 직업 결정에 있어 정치적으로 공인된 특혜 자격으로 통했듯이 改革期에는 한 자녀 가족 지위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우선권 부여 자격으로 통하고 있다.

산아제한에 관한 이같은 포괄적인 보상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 갖기 규범은 아직 농민인구에 깊이 정착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구정책에 대한 저항과 출산행위에 관한 위장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실제 출산율은 공식적 목표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물론 개혁정책으로 더욱 증폭된 대가족의 사회·경제적 이점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가족계획에 관련된 보상 및 규제 장치들의 실행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지역마다 경제여건이 다양하고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보상체계를 일원화시키기가 어렵다; 가족계획 혜택 중 많은 부분이 일종의 선언적 약속으로 그 이행 여부가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들도 농촌의 脱집단화로 인한 사회정책들의 조직성 약화와 국가의 재정적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 급증하는 인구이동 때문에 출산행위에 대한 효과적 감시와 규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반적 경제 자율화 과정에서 한 자녀 가족에 대한 특혜

¹⁴ 이러한 특혜들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한다 (Croll, Davin, and Kane, eds., 1985 등 참조). 한 자녀만 갖는 경우 특혜는 월별 아동양육 보조, 무료 의료혜택 및 학비 면제, 탁아소 및 유아원 배정에 있어서의 우선권, 직장 배정에 있어서의 우선권, 유급·장기 출산휴가, 주택 할당의 우선권, 공적 노후보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허용범위를 넘어 출산한 가족에 대해서는 별금 부과, 한자녀만 갖기로 하고 누렸던 모든 특혜의 반납 및 면제, 출산에 있어 공공 서비스의 제공 중지, 모자보건 서비스의 제공 중지, 유아원과 학교 배정의 제한, 감봉 등 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조치가 농민생활에 대한 관료적 간섭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산아제한에 관한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농민가족들의 자녀수는 하나나 둘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한, 두 자녀 가족의 비율은 만일 방임적 인구정책이 취해졌더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산아제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 출산 감시, 강제적 낙태 및 불임시술 등 강압적 조치들의 효과와 물질적 보상조치들의 효과를 분리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국인들의 출산 행위는 국가의 인구억제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민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피동적인 적응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혁정책의 결과, 농촌의 경제사정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가족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바로 감지되는 상황에서 농민 가족들은 여러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VI. 農民의 대응 – 隱蔽, 再構成, 撤收, 離脫

개혁정권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모순에 대한 농민들의 자구책들은 다음의 네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농민들은 국가의 산아제한 시책을 빼져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의 의사나 기타 의료행위자들은 농민들에게 가장 널리 보급된 피임장치인 IUD를 비밀리에 제거해 주는 불법적 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Bianco and Hua, 1988:154-55). 사실 이들은 改革期에 ‘자유경제활동’을 통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일종의 ‘人口查察(demographic policing)’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집단적 대처를 하기도 한다.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망루에 올라 정부의 計劃生育 감시조가 나타나면 징을 쳐 불법적 임산부들을 마을 뒷산으로 숨기는 애피소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족의 대잇기와 노후 보장을 걱정하는 농민들 사이에서 女英아 유기 및 살해가 번지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아직 일부 현상이지만 女태아에 대한 선별적 낙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표 4〉를 보면 1982년과 1990년에 각각 中國 신생아들의 性比(여아=100)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性比는 105 정도가 자연적인 것이므로, 1982년의 107.63과 1990년의 111.68은 남아를 선호하는 中國의 부모들이 女英아들에게 가한 비인륜적 행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두 인구 센서스에서 모두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性比의 감소율이 매우 완만하다는 사실은 영아 단계를 지나서도 여아들이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예를 들면, 1982년 0세 집단과 1990년 8세 집단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8년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性比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을 기준으로 14세 집단까지 해당되는 것이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8년간의 기간 동안 아동 집단의 性比는 꾸준히 감소했을 것이지만, 1980년대 中國에서는 끈질긴 여아 차별로 性比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정상적 수치들은 실제로 일어난 여아 살해나 유기를 반영할 수도 있고 또

〈표 4〉 1982년과 1990년의 아동 및 청년 인구의 性別-年齡別 분포

연령	1982년 셈서스			연령	1990년 셈서스		
	남성 (십만명)	여성 (십만명)	성비 (여=100)		남성 (십만명)	여성 (십만명)	성비 (여=100)
전체	5,152,775	4,886,364	105.45		5,823,809	5,494,952	105.98
				0	122,790	109,946	111.68
				1	123,398	110,487	111.69
				2	126,774	115,113	110.13
				3	127,068	116,278	109.28
				4	111,485	102,893	108.35
				5	104,056	95,963	108.43
				6	99,482	91,262	109.01
				7	105,259	96,792	108.75
0	107,870	100,223	107.63	8	114,320	106,098	107.75
1	90,150	83,608	107.83	9	93,762	87,405	107.27
2	94,608	88,130	107.35	10	99,783	92,788	107.54
3	101,313	94,942	106.71	11	100,110	93,603	106.95
4	95,896	90,303	106.19	12	97,565	91,586	106.53
5	100,060	94,153	106.27	13	100,089	93,991	106.49
6	105,289	99,037	106.31	14	105,777	99,260	106.56
7	112,160	105,635	106.18	15	111,576	105,485	105.77
8	123,732	116,598	106.12	16	120,913	114,519	105.58
9	129,023	121,674	106.04	17	126,228	119,684	105.47
10	129,904	122,321	106.20	18	125,818	119,497	105.29
11	140,719	132,514	106.19	19	133,607	126,687	105.46
12	136,147	128,727	105.76	20	132,286	128,265	103.13
13	145,222	137,174	105.87	21	138,709	133,260	104.09
14	126,388	118,994	106.21	22	126,007	119,602	105.35

자료: 1982년 셈서스 자료는 「中國1982年人口普查資料」(國家統計局人口統計司 編, 1985); 1990년 셈서스 자료는 「中國1990年人口普查10%抽樣資料」(國家統計局 人口統計司 編, 1991).

국가의 간섭을 피해 어떻게든 남아를 갖기 위해 여아들을 일부러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인구조사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일종의 '기록상 살해'를 반영할 수도 있다. 특히 1982년 기준으로 0-2세 집단은 1990년에 오히려 인구수가 늘어났는데, 이는 초기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압력 속에서 출생신고되지 못한 아동들이 그 이후에 뒤늦게 호적에 올려지고 인구조사에도 보고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¹⁵ 어떤 경우가 됐던, 가부장적

15 물론 이러한 入籍 자체는 반드시 땅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녀의 성별에 상관 없이 추가 자녀를 바라는 모든 부부에 의해 범해질 수 있다.

가족구조도 유지하고 노후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 아들 하나라도 얻으려는 필사적 노력이 전국적 수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장 극악한 형태의 여성차별이 1982년에서 1990년 사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이 기간 동안 농촌의 경제개혁으로 생산 및 소비 활동에 대한 개별 농민가족들의 자율성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농민가족의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활동의 조직적(인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서 출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 가족 구조나 관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中國 농민가족들은 외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과 가족 형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친족간 거주 양태와 부양 관계를 신축적으로 조정했다 (Fei, 1939). 이러한 전통은 혁명 이후 집단 경제체제하에서 사라져 가는 듯 했으나 최근 改革期에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농민가족들은 脱집단화된 농업 뿐 아니라 새롭게 변창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집단적 농촌 사회보장 기제의 몰락으로부터 특수 곤궁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이웃간 및 친족간의 실용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Tien and Lee, 1988; Hareven, 1987; Croll, 1987).

Hareven (1987:684)에 따르면, "가족노동력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은 확대 가족을 다시 한번 재형성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Croll (1987)은 '집합가족(aggregate family)'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집합가족은

한가지 돈벌이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생겨나지만, 더욱 흔하게는, 한 가구가 집합가족에 할당된 농토 전체를 경작하고 다른 가구는 상품생산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또 다른 가구는 운송, 기술 혹은 판매를 맡음으로써 속한 가구들이 크게 보아 상호의존적이 되고 집합가족 전체는 대체로 통합되고 자체유지되는 단위가 되는 식으로 형성된다 (Croll, 1987:491).

이러한 경제적 결합이 사회적으로 지탱할만 하고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 집합가족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하에 이른바 '新經濟聯合'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기도 한다 (Howard, 1988).

가족노동력 부족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양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취학 자녀들의 학업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시키고 집안 일손으로 동원하는 현상이다. 개혁정책의 전개와 함께, "수많은 농민가족들은 농사일을 둉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집에 불침아 두려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각급 학교의 취학률이 눈에 띠게 낮아지고 있다 (Perry and Wong, 1985:20). 이같은 취학률 감소는 도시지역에는 없는 현상이다 (Davis, 1989). 물론 아동노동력의 사용이 中國 농민사회에서는 아주 오래된 현상이지만 아동들을 학교로부터 끌어내는 행위를 가족노동력 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 행위라고 간단히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농민들이 공식 학교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농촌 아동들의 미래에 관한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中國 정부는 재정위기의 악화를 빌미로 농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임으로써 문제의 해결 보다는 심화를 유도하고 있다 (Davis, 1989).

〈표-5〉 각급 학교 在學生數, 1971-90

(단위:千名)

年 度	小 學	中 等 學 校	普通高等學校
1971	112,112	31,494	83
1972	125,492	36,167	194
1973	135,704	34,947	314
1974	144,814	37,137	430
1975	150,941	45,368	501
1976	150,055	59,055	569
1977	146,176	68,488	625
1978	146,240	66,372	856
1979	146,629	60,249	1,020
1980	146,270	56,778	1,144
1981	143,328	50,146	1,279
1982	139,720	47,028	1,154
1983	135,780	46,347	1,207
1984	135,571	48,609	1,396
1985	133,702	50,926	1,703
1986	131,825	53,216	1,880
1987	128,359	54,031	1,959
1988	125,358	52,461	2,066
1989	123,731	50,540	2,082
1990	122,414	51,054	2,063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2」(國家統計局, 1992:702-3).

〈표 5〉를 보면, 각급 학교의 재학생수가 改革期를 전후해서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서거나,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小學을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전체 재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197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체 상태에 있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물론 1970년대 초반부터의 강력한 가족계획으로 취학연령 아동수가 줄어든데도 크게 기인하지만 위에서 말한 농민들의 의도된 아동노동력 확보 노력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中等學校 재학생수를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中等學校 재학생수는 1977년에 6천 8백 만명으로 정점에 이르러고 개혁의 시작과 더불어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다.¹⁶ 이러한

16 앞서 지적한대로 이 시기는 1979년부터의 '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산아제한책이 더욱 강화된 시기 와도 맞물린다.

감소세는 가족계획에 의한 中等學校 취학연령 인구의 감소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시작된 것이어서, 그 주된 원인을 경제 및 인구 정책의 모순에 대한 농민들의 적응노력으로서의 아동노동력 확보 노력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中等學校 재학연령 청소년들은 농가노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청소년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진학하는 普通高等學校의 재학생수에서는 이같은 추세를 잘 관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 일시 감소하는 등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처럼 농민들이 改革期 산아제한에 대해 갖은 적응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가족에 의존한 경제 성장 및 다변화 그리고 농촌 사회보장은 한시적인 방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정한 도시경제의 성장이 있어야 거의 2억에 가까운 과잉 농촌 노동력을 서서히 산업노동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Chang, 1993a, 1993c).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농촌의 경제개혁과 가족계획 사이의 모순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改革期에 들어 농촌 중심지들에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鄉鎮企業들이 번성하고, 대도시들에는 계약 건설노동 등 비국가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이동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약화되는 등 농민들의 移村向都가 갈수록 용이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Goldstein and Goldstein, 1988; Chang, 1993a, 1993c). 따라서 실용주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 모순성을 특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소규모 농민가족들은 가족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도시 이주와 노동자화(proletarianization)라는 선택을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노동력이 부족한 大河의 농민가족들은 자영업을 통해서는 큰 소득을 올릴 수 없었고 따라서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고용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즉 소가족들은 원거리 도시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빠른 노동자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반응은 아예 살던 마을을 떠나 대도시 지역에서 임시 고용노동자 또는 무허가 개인 서비스업자로서의 경제활동 기회를 찾아 보는 것이다. 거의 모든 中國의 대도시들은 이같은 (무허가) 이농자들이 수만에서 2-3백만까지 봄비고 있다 (Chang, 1993c). 이 가운데에는 아직 노동력이 없는 아동 한, 둘을 데리고 농촌경제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어 도시로 떠나온 젊은 부부들이 많다.

이러한 中國 농민들의 경험은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그동안 출산율 전환에 관한 인구이론은 '노동자화(proletarianization)', 즉 도시화와 산업화에 수반한 대규모 노동자 집단의 형성이 서구 및 비서구 사회에서의 출산율 전환(fertility transition) 및 핵 가족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었다. 대표적인 논의로 Caldwell(1982)의 '부의 흐름(wealth flows)' 이론은 자본주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등장이 농민가족의 내부적 경제상황과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이에 대한 적응 노력으로서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최근의 中國 농촌에서 출산율 감소의 핵심 요인은 국가의 강압적 산아제한 정책이지 산업화와 도시화에 수반한 노동자화가 아니다. 즉 정책적으로 유도된 출산율 감소가 가족노동력 부족을 야기해 궁극적으로 도시이주 및 노동자화가 촉진되는 일종의 '역노동자화 (inverted proletarianiz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회에서처럼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출산율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유도된) 출산율 감소가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면이 있다. 이 역 노동자화 가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⁷

VII. 결 론

현 단계 사회주의에서 집단경제의 실용성을 의심하는 中國의 개혁정권은 농촌의 효율적 생산관리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가족을 농업 및 비농업 생산의 핵심조직체로서 부활시켜 놓았다. 1970년대 말 이래 도입된 농촌의 각종 생산책임제는 궁극적으로 농민가족의 독립적 생산 기능을 재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러한 생산제도 개편의 경제적 성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선전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中國 정부가 농촌에서 가족의 존적 생산·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동시에 농민가족의 산아제한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타나는 심각한 정책목표의 모순이 있다.

농민가족이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 소비, 부양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中國에서 농가의 적정 조직규모는 개혁정책의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커야 하는 반면, 실질적 가족규모는 그동안의 집중적 산아제한의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작은 딜램마가 있다. 1970년대 초반 이래의 강력한 가족계획의 결과, 1970년대 말에 전체 출산율이 ‘人口代替 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을 겨우 넘는 상태가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평균 가족규모가 역사상 가장 작은 수준에 이르렀다. 즉, 개혁정권의 경제정책은 농민들에게 뜻밖의 경제적 호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의 ‘出產干涉(fertility intervention)’으로 인해 가족규모가 줄어들고 가족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갈수록 많은 농민들이 그 경제적 기회를 살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딜램마를 극복하기 위해, 中國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을 단순히 인구·토지 균형이라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만 정당화시키는데 끝나지 않고 (산아제한에 따르는) 한,

¹⁷ 1982년의 한 농촌조사와 1989년의 安徽城 임시이동인구 조사를 비교해 보면 역노동자화 가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다 (Chang, 1991:62 참조). 1989년 安徽의 임시 도시이주 可能여성 가운데 한 자녀만 갖겠다는 비율은 19.4%에 달했다. 두 자녀를 바라는 여성들을 포함하면 거의 90%에 해당하는 임시적 移農 여성들이 가족계획 상한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정식으로 도시 거주민이 되면 모두 한 자녀만 가져야 한다.) 그러나 1982년의 농촌조사에서 한, 두 명의 자녀만 갖겠다는 여성은 5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자녀수가 적거나 적게 원하는 농민들이 주로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농자들이 도시로 온 이후 그다지 가족중심적이지 않은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도시지역으로 온 이농자들이 국가의 산아제한 조치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기능 사이의 모순을 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자녀 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음을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改革期 中國에서 가족노동력이 풍부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 및 소득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을 추진하는데 전략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中國 농촌개혁의 즉각적 성공은 소가족들보다는 대가족들의 경제적 활력에 더욱 힘입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농촌 복지에 있어 가족의 자체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적 강조는 ‘한 자녀 갖기’ 이념과는 근본적으로 괴리되는 것이다. 改革期 中國 농민들에게는, 자녀수, 특히 아들의 수만큼 중년 및 노년의 생활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가족의 명백한 이점들에 대비할 때, 中國 정부가 거론하는 “소가족의 조화로운 삶”은 그다지 농민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에 대해 ‘한 자녀 갖기’의 사회·경제적 의의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정당화시켜 줄 수 없는 가운데, 中國 정부는 가족계획에 순응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상적 가족수에 대한 관념을 인위적으로라도 바꿔 보려고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 中國 정부는 소가족들의 ‘경제적 不利’를 국가 인구정책 추종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상쇄시킴으로써 농민 출산의 비용-혜택 구조를 가족계획에 용이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改革期에 들어 지역별로 다양해지는 경제적 여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악화되는 재정적, 조직적 기반 등의 요인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보상의 효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國 정부는 출산 행위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심지어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 방법에 더욱 의존해 갔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법적’ 출산행위를 은폐하거나 영아살해까지 범하고, 이웃과 친족 사이의 도구적 유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일손을 늘리기 위해 취학 아동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아니면 아예 농촌을 떠나 개인 노동자로 변신하는 등 다양한 적응 노력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中國에서 산아제한 문제는 인구조절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합의와 결과를 갖고 있다. 농민들이 가족중심적인 사회·경제적 삶의 기초를 유지시키기 위해 그들의 출산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인구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과 대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그만큼 개혁정책이 가족중심적 농민경제를 재강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中國 정부가 산아제한의 강도를 빈번히 변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한정된 농토에 대한 인구압력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가족생산조직의 인적 기초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모순된 정책목표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대 中國에서 가족계획은 실용주의 개혁정권과 농민가족이 농촌발전에 있어 일종의 共助 혹은 共生 관계를 유지하려는 어려운 과정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하는 핵심적인 상황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張慶燮

1992 “中國 농업 私營化의 성격에 대한 再評價,”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14(1), pp. 199-220.

中華人民共和國 國家計劃生育委員會

1986. “中國計劃生育工作的三十五年,” 中國社會科學院人口研究中心 編, 『中國人口年鑑 1985』, pp.921-26,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編

1992. 『中國統計年鑑 1992』,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人口統計司 編

1985. 『中國1982年人口普查資料』,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1 『中國1990年人口普查10%抽樣資料』,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Bianco, Lucien, and Hua Chang-ming

1988 “Implementation and Resistance: The Single-Child Family Policy,” in Stephan Feuchtwang, Athar Hussain, and Thierry Pairault, eds., *Transforming China's Economy in the Eighties I: The Rural Sector, Welfare, and Employment*, pp. 147-68, London: Zed Books.

Buck, John Lossing

1930 *Chinese Farm Economy: A Case Study of 2866 Farms in Seventeen Localities and Seven Provinces i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ldwell, John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London: Academic Press.

Chang, Kyung-Sup

1990 “Socialist Institutions and Family Wealth Flows Reversal: An Assessment of Post-Revolutionary Chinese Rural Fertility,” *Jounral of Family History* 15, pp.179-200.

1991 “Economic Development with Limited Supplies of Family Labor: Chinese Peasant Families in Balancing Demographic and Economic Requisites,” *Korea Jounr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0, pp.47-76.

1993a “The Peasant Family in the Transition from Maoist to Lewisian Rural Industrialisa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9, pp.220-44.

1993b *The Chinese Logic of Rural Reform: Peasant Economy and Surplus Population in Post-Collective Rural Development*, forthcoming by Westview Press, Boulder.

1993c “China's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Economic Reform: A Comparative Appraisal,” forthcoming in *World Development*.

Chao, Kang

1970 *Agricultural Production in Communist China, 1949-1965*, Madison: University of

- Wisconsin Press.
- Chayanov, Alexander Vasil'evich.
- 1986 *Theory of the Peasant Econom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hina Financial & Economic Publishing House (CFEPH)
- 1988 *New China's Population* New York: Macmillan.
- Croll, Elisabeth. 1987. "New Peasant Family Forms in Rural China," *Journal of Peasant Studies* 14, pp.469-99.
- 1988 "The New Peasant Economy in China," in Stephan Feuchtwang, Athar Hussain, and Thierry Pairault, eds., *Transforming China's Economy in the Eighties I: The Rural Sector, Welfare, and Employment*, pp.77-100, London: Zed Books.
- Croll, Elisabeth, Delia Davin, and Penny Kane, eds.
- 1985 *China's One-Child Family Policy*, New York: St. Martin's.
- Davin, Delia
- 1985 "The Single-child Family Policy in the Countryside," in Elisabeth Croll, Delia Davin, and Penny Kane, eds., *China's One-Child Family Policy*, pp.37-82, New York: St. Martin's.
- Davis, Deborah
- 1989 "Chines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Outcomes," *China Quarterly* 119, pp.588-97.
- Fei Xiaotong (Fei Hsiao-Tung)
- 1939 *Peasant Life in China: A Field Study of Country Life in the Yangtze Vall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Goldstein, Alice, and Sidney Goldstein
- 1988 "Varieties of Population Mobility in Relation to Development in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2, pp.101-24.
- Greenhalgh, Susan
- 1988 "Fertility as Mobility: Sinic Transitions," *Center for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141, New York: Population Council.
- Hardee-Cleaveland, Karen, and Judith Banister
- 1988 "Fertility Policy and Implementation in China, 1986-88,"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 pp.245-87.
- Hareven, Tamara K
- 1987 "Reflections on Family Researc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cial Research* 54, pp.663-89.
- Honig, Emily, and Gail Hershatter
- 1988 *Personal Voices: Chinese Women in the 1980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u Wenruo
- 1981 "Population Policy," in Liu Zheng et al., eds.,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 Prospects, pp.55-76, Beijing: New World Press.
- Howard, Pat
- 1988 *Breaking the Iron Rice Bowl: Prospects for Socialism in China's Countryside*, Armonk: M. E. Sharpe.
- Hsiung, Bingyuang, and Louis Puttermann
- 1989 "Pre- and Post-Reform Income Distribution in a Chinese Commune: The Case of Dahe Commune in Hebei Provi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 pp. 406-45.
- Liu Zheng
- 1981 "Population Planning and Demographic Theory," in Liu Zheng et al., eds.,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Prospects*, pp.1-24, Beijing: New World Press.
- Liu Zheng et al., eds.
- 1981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Prospects*, Beijing: New World Press.
- Mao Zedong (Mao Tse-Tung)
- 1965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1, Beijing: New World Press.
- Peng Xizhe
- 1987 "Demographic Consequences of the Great Leap Forward in China's Provin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 pp.639-70.
- Perry, Elizabeth, and Christine Wong
- 1985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Causes, Content, and Consequences," in Elizabeth Perry,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pp.1-3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termann, Louis
- 1989 *Hebei Province, Dahe Commune/Township: Data Sets and Codebook*,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 Saith, Ashwani
- 1984 "China's New Population Policies," in Keith Griffin, ed., *Institutional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hinese Country Side*, pp.176-209, London: Macmillan.
- Su Wenming, ed.
- 1982 *From Youth to Retirement*, Beijing: Beijing Review.
- Tien, H. Yuan
- 1983 "China: Demographic Billionaire," *Population Bulletin*, 38(2), Washington: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Tien, H. Yuan, and Lee, Che-Fu
- 1988 "New Demographics and Old Designs: The Chinese Family amid Induced Fertility Transi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69, pp.605-28.

Watson, Andrew

1987 "The Family Farm, Land Use and Accumulation in Agricultur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17, pp.1-23.

Wolf, Margery

1985 *Revolution Postponed: Women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conomic Reform and Population Problem in Rural China —Economic Sociology of Family Planning—

Kyung-Sup Chang

The issue of family planning in post-Mao rural China has profound implications beyond the domain of demographic control. The pragmatist position of pursuing full-scale family planning and family-reliant rural development simultaneously has left Chinese peasants in an awkward situation where their desire for more children, in particular more sons, in familial production and welfare provision is directly betrayed by the draconian measures of coercive birth control. The state intervention in peasants' fertility had gone far, and peasant resentment against compulsory abortion and sterilization in record numbers came to pose a serious political threat. Thu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change the cost-benefit balance of peasant procreation by offsetting the economic disadvantages of small peasant families with political rewards for compliance to family planning. Nevertheless, peasants' attempt to circumvent unwanted family planning is almost desperate. Given a current or prospective shortage of family labor, some of them will join relatives and neighbors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in various production activities, and others will rather uproot themselves from village terrains to seek individual labor-selling opportunities in towns and cities. Still, others will not mind committing female infanticides, hiding newly born girls, or withdrawing children from schools to help out on their parents' farms.

장정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Tel : 880-6410(O), 873-0641(H)